

낙농정책과 우유소비 확대 방안



정 등 흥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WTO차기협상은 앞으로 유제품 등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가 주요 협상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21세기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는 열악한 낙농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낙농가, 유업체, 생산자단체, 정부가 하나로 뭉쳐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들어가면서

우 리나라 낙농산업은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국민경제 성장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80년과 비교할 때 사육두수는 3.1배, 호당 사육두수는 4배, 1인당 연간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은 58.6kg으로 5.4배가 증가하였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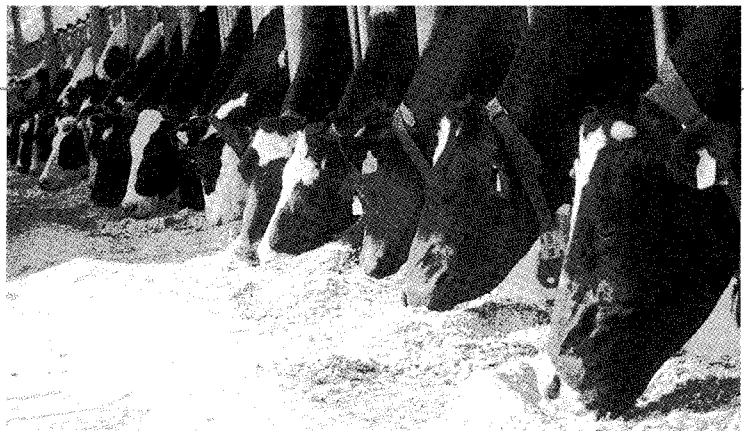
그러나 우유소비량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민경제성장과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유 및 유제품이 수입개방된 상황하에서도 음용유 소비가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낙농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 볼 수 있다.

국내 낙농산업은 그동안 급격한 성장과 함께 많은 위기와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93년의 UR협상타결로 모든 유제품이 수입자유화되고, '97년 IMF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로 분유재고가 1만6천톤을 넘는 등 위기상황을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낙농관련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0여년간 끌어온 낙농진흥법이 '97년에 개정되고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어 원유의 집유 일원화 및 검사공영화가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새천년을 향한 21세기의 낙농산업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WTO차기협상은 앞으로 유제품 등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가 주요 협상쟁점으로

〈표 1〉 사육두수, 사육호수 및 우유수급 동향

구 분	'80	'85	'90	'95	'97	'98	'99	2000.6
사육두수	172.9천두	390.1	503.9	553.5	544.4	539	535	543
사육호수 (호당평균)	17.7천호 (9.8두)	43.8 (8.9)	33.3 (15.1)	23.5 (23.5)	17.4 (31.3)	15.7 (34.4)	14.4 (37.1)	13.8 (39.4)
생산	452천톤	1,006	1,752	1,998	1,984	2,027	2,244	
소비 (1인당)	412천톤 (10.8kg)	991 (23.8)	1,879 (42.8)	2,144 (47.8)	2,440 (53.3)	2,299 (49.2)	2,747 (58.6)	2,623 (58.0)
수입	-천톤	2	-	195.9	444.5	282	456	513
생산비	245원/kg	296	376.1	412.6	507	500	422	
두당산유량	4,494kg/두	4,681	5,372	5,836	5,882	6,032	6,135	



부각되고 있어 21세기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는 열악한 낙농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낙농가, 유업체, 생산자단체, 정부가 하나로 뭉쳐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낙농진흥회를 통한 집유일원화사업에 전체 낙농관련기관이 참여하도록 낙농육우인 여러분 및 유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부로서도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 집유조합 및 유업체에 대해서는 각종자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구조적인 경쟁력 제고와 함께 물류비용과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으로 제품가격의 인하로 우유소비시장의 확대가 수반되어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낙농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낙농산업의 당면과제

<구조 및 제도적 측면>

- ◆ 일부 농가 및 유업체의 집유일원사업 참여 유보로 안정적인 낙농산업체제 구축 지연
 - 낙농가의 경우, 유업체와 장기계약 체결 및 성수기 원유대 이외의 웃돈지급 등 기대로 집유일원화사업 참여 유보
 - 원유성수기에 참여 농가의 이탈

시, 미참여 유업체의 참여농가 인수시에 대한 관리방안 미흡

◆ 영세한 사육규모, 조사료자원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경쟁력 취약

- 사육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동집약형으로 사육비 과다
 - 원유생산비('97) : 한국 507원/kg, 미국 226원/kg의 1.8배
 - 호당 사육규모('99) : 한국 37두, 일본 48두, 미국 85두
- 조사료 자원부족에 따른 볏짚 위주사양, 농후사료 과용 등으로 젖소 능력발휘에 제약
 - 두당산유량('98) : 한국 6,099, 일본 8,488, 미국 7,713kg

◆ 소비변화에 맞는 개량, 유대산정체제 구축 등 미흡

- 산유량 및 유지방에 의한 유대지급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집약형으로 사육비 과다
- 조사료 자원부족에 따른 볏짚 위주사양, 농후사료 과용 등으로 젖소 능력발휘에 제약
 - 두당산유량('98) : 한국 6,099, 일본 8,488, 미국 7,713kg

<우유수급 측면>

◆ 음용유 위주의 우유소비 구조로 수급조절 및 기타 유제품 경쟁력 취약

- 교역이 안되는 시유(67%)는 국내생산비에 근거한 가격이 형성되는 반면,
- 주요 유제품의 원자재인 국산분유의 경우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 공장도가격 이하의 가격이 형성됨

◆ 광역적 유통 및 가정배달 유통체제로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 시유판매량의 86%가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어 유통마진이 큼
 - 유기공공장에서 직 공급(유통점, 단체급식)은 14% 수준

◆ 광고홍보비용의 과다 지출로 소비자가격 상승

- 유업체별 자사제품의 특화를 위하여 개별광고 추진
 - 연간 유제품광고를 위하여 2천억원 이상 광고홍보비 지출
 - '99년 주요 5개 유업체 4대 광고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비용이 1,500억 원 수준
- 판매경쟁에 의한 타사 유제품

과 비교광고 등으로 전체 우유소비시장 확대에 악영향

3. 낙농산업 발전대책

가. 기본방향

- ◆ 집유일원화사업의 조기 정착
 - 참여농가 및 유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수급조절기능 강화와 품질 강화
- ◆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 낙농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조사료 등 부존자원 생산기반 확충
- ◆ 지속적인 우유소비 홍보
 - 민간자율적인 우유, 유제품 소비촉진 홍보체계 구축
 - 소비자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 추진

나. 집유일원화사업에 의한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 집유일원화사업 참여 확대로 낙농산업 구조개선
- 집유일원화율 : ('00.6) 51% → ('00.12) 70% → (2001) 90%

- ◆ 집유권역의 단계적 축소
 - 집유조합 : ('99) 17개조합 → (2000) 9개조합 → (2002) 6개조합

- ◆ 원유 집유질서 확립

- 성수기 적정원유대금 이외에 각종 지원성 보조금 등의 지급을 통한 낙농가 유인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 강구
 - 집유조합과 기 체결된 원유공급계약 해지 추진(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 등)
 - 원유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유지 감독 강화(불공정거래신고발조치 등)

◆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유업체를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유업체로 한정(2001년부터 시행, 기예고)
- 유제품 시장접근 물량 배정시 우선배정
- 우유 군급식사업 납품물량 우선배정
- 각종 정책지원자금 지원 우선권 부여

◆ 집유일원화사업 제도보완을 위한 실무작업반(TFT) 운영

- 집유일원화사업 추진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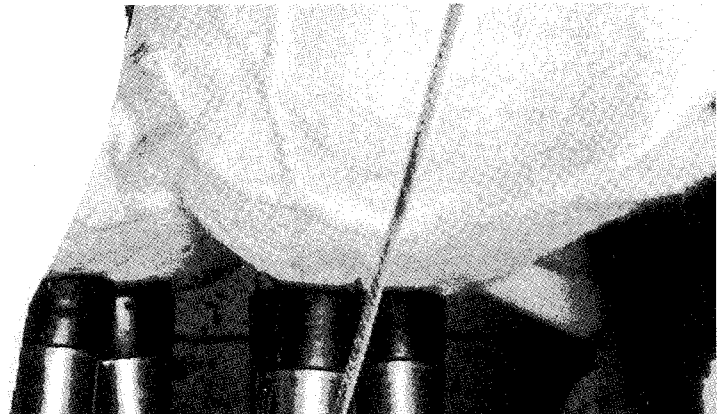
-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지역에 대한 수급조절사업 시행
- 국산분유의 사용촉진 및 참여유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한 차액보전, 수매 등 수급조절사업 실시

◆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참여확대 유도

- 참여농가 및 조합에 대하여 원유인수자금 및 계약보증금 지속지원
- 원유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참여농가 냉각기 교환 및 증설 지원
- 원유유통 구조개선을 위하여 집유영업권 및 운송영업권 폐지에 따른 참여조합의 집유장 시설 및 집유·운송업자의 장비에 대한 지원
- 원유의 합리적 유통개선과 정확한 유대정산을 위한 장비 지원

다.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확대
- 경영자금지원규모 : ('00) 6,700억원 → (2004) 19,300



- 역원
- 가축공제사업 전국확대실시 : ('99) 38천두 → (2000) 200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확대시행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 지원액 : ('99) 150억원 → ('00) 1,940억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지속(연간 300억원 수준)
 - 신규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관리 강화(보조 50%, 용자 50%)
- 청예작물 및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보조 50%)
- 국내 부존자원 활용 및 사료가치 향상
 - 벗짚 암모니아 처리 및 곤포 시일리지 제조지원
- 조사료 기반시설 및 생산기계 구입비 지원조건 개선
 - 용자 70% → 일정비율 보조

◆ 젓소개량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낙농경영합리화 유도

- 산유능력검정 참여 비율을 현재 17%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이상으로 제고
 - 검정두수 : ('98) 53천두 → ('99) 70천두 → ('00) 100천두
 - 검정비용지원 : ('98) 1,276백만원 → ('99) 2,360 → ('00) 3,527

- 한국형 보증종모우 선발 및 우량 유전자 조기도입으로 젓소 능력 향상

◆ 환경 친화형 낙농업 육성 및 기자재 공급체계 확립

-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처리 신규시설 및 노후 시설 교체시설 지원 : ('99) 870억원 → ('00) 762억원
- 축산분뇨자율화 표준설계도 및 축사표준설계도 도입 보급
- 낙농기자재의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우수기자재 생산자금 지원

◆ 낙농 컨설팅체계 구축 및 지도 사업 확대

- 낙농가와 전문컨설팅 업체 연계로 효율적인 경영 유도
 - 전문컨설팅 업체에 대하여 일부 보조지원(보조 70%)
- 생산자단체, 낙농진흥회 등을 통한 원유품질향상 및 계획생산대비 낙농경영지도사업 확대 추진

라. 지속적인 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반 구축

- ◆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통한 우유소비광고 확대
 - 낙농가 스스로 자조금조성시 조성액의 50%지원
 - '99년 자조금 조성액 : 2,521백만원(보조지원 830백만원)
 - 2001년부터 조성액의 50%~100% 지원(농안법 개정)

- ◆ 낙농가, 유가공업계, 생산자단체 등 관련업계의 수평적 협동 광고 시행 등 민간자율적인 우유 소비촉진

- 원유 생산의 경직성과 상품적 특성, 우유·유제품의 높은 소득 탄력성 및 소비자의 기호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향적인 방법보다는 소비 지향적인 방법으로 추진(예 : 학교우유급식의 연중 실시)

- 제품의 유용성, 유통구조, 위생 기준 등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적 차원의 공동 광고를 시행 등

◆ 우유의 차등가격제 도입

- 원유가격은 소비의 성수기(3~10월)에는 높게, 비수기에는 낮게 책정
 -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 시유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가격 적용

◆ 우유의 유통구조개선

- 일반백화점, 대기업체, 일정수준 이상의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공장에서의 직공급 확대 및 OEM방식에 의한 공급 확대 추진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에서의 냉장차량을 이용한 직판매 실시 및 포장용기의 대용량화로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

◆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 확대

- 원유가격, 원유시장의 물류 비용, 원재료의 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등 절감요인 발굴
- 용도별 가격차등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제품의 국산제품 대체 개발 유도과 소비자 접근 용이성 제공

3. 맺음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유일원화사업은 국내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조속한 정착이 절실한 시점이다.

낙농관련 종사자들의 총의에

의하여 마련된 바람직한 선진낙농제도임을 이해하여 집유일원화사업 및 검사공영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농정책사업중 집유일원화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정책지원도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구별하여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급안정과 품질고급화 등을 통한 소비기반의 확대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낙농가, 가공업계, 생산자단체, 정부 모두가 공통된 인식하에 우유소비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들과 IMF 사태하에서 우리 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낙농가, 생산자단체, 유업체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21세기 낙농산업은 개방화시대에도 튼튼한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한발 더 나갈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필자연락처 : 02-504-9434)



이태리産

유로텍®

50인치 환



양계·양돈·우사
공장·온실에 사용
가격 저렴

- 전력 : 380V 3상용, 220V 단상용
- 모터 : 1.0Hp, 1.5Hp
- 풍량 : 40,000m³/시간, 660m³/분
- 환 외부 규격 : 138×138×40cm

판매원 한국양계시스템

전화 : (031)204-4754
H.P : 011-324-0750(김영기 상무)